

<지리산국립공원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 지리산이 품은 아름다운 대원사 계곡이야기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환경교육	<b>지리산이 품은 아름다운 대원사계곡 이야기</b>	활동장소	대원사계곡길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초등~성인
		참가인원	20명/해설사1명
		작성자	자연환경해설사

<b>활동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설탐방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적 새로운 탐방문화 제시 및 정착</li> <li>• 대원사 계곡길을 걸으며 대원사 역사와 문화의 이해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낌</li> </ul>
-------------	---

<b>준비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보재, 기가폰, 태블릿PC, 설문지, 프로그램 홍보물, 필기도구, 구급함, 카메라</li> </ul>
------------	--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이 이동하는 길을 걷기 때문에 차량에 유의 하고, 기타 안전사항에 유의 한다.</li> </ul>
-------------	---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b>도입 (생각열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나누기 및 지리산국립공원 소개</li> <li>• 탐방 시 유의사항</li> </ul>	10분
<b>전개 (놀이 및 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막골과 금관가야, 대원사 계곡길</li> <li>• 소나무와 참나무</li> <li>• 장항동(노루목)</li> <li>• 돌개구멍</li> <li>• 국립공원의 깃대종, 히어리</li> <li>• 지리산에 동물이 살아요</li> <li>• 군말을 보관하던 맹세이골</li> <li>• 자연이 주는 교훈, 대원교</li> <li>• 석각 찾아보기 1</li> <li>• 일심(一心)으로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 대원사 일주문</li> <li>• 일제의 잔재, 송진 채취 흔적</li> <li>• 석각 찾아보기 2</li> <li>• 대원사의 역사</li> <li>• 대웅전속 숨은 이야기</li> <li>• 대원사의 보물 다층석탑</li> <li>• 이름마다 뜻이 다른 전각</li> <li>• 사찰주변의 식물</li> <li>• 방장산교</li> <li>• 용이 100년동안 살았다는 용소</li> <li>• 진달래와 철쭉</li> <li>• 노각나무</li> <li>• 생강나무</li> <li>• 정겨운 낙엽 속에서 뛰노는 아이들, 가량앞초등학교</li> <li>• 지리산의 역사이자 사람들의 휴식처</li> </ul>	90분
<b>마무리 (생각나누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무리 및 정리</li> <li>• 느낌나누기, 마무리 인사</li> </ul>	20분

<b>시나리오</b>	<p style="text-align: center;"><b>인사 나누기 및 지리산국립공원 소개</b></p> <p>안녕하십니까, 맑고 화창한 오늘, 지리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p>
-------------	--

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곳은 우리나라 제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은 산세가 매우 크고 넓어서 면적이 무려 483km<sup>2</sup>에 이르며,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서는 가장 넓습니다. 483km<sup>2</sup>라는 넓이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위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리산의 면적은 146,107,500평이 됩니다. 정말 넓죠?

지리산은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만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도 으뜸입니다. 2019년 국립공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에는 식물 1,832종과 동물 5,111종 등 모두 8069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왕봉(1,915m), 노고단(1,507m), 제석봉(1,806m), 반야봉(1,732m) 등 44개의 봉우리와 칠선계곡, 피아골계곡, 뱀사골계곡, 대원사계곡 등 28개의 계곡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름 없는 봉우리와 계곡까지 더하면 셀 수 없이 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있습니다.

### 탐방 시 유의사항

그럼 대원사계곡으로 출발하기 전 국립공원에 오시면 지켜야 될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자연 속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에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자연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맑은 하늘, 그 아래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숲, 계곡의 물소리,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 자연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자연에 초대된 손님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연의 손님인 여러분도 손님으로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소막골과 금관가야, 대원사 계곡길

왼쪽으로 출렁다리가 보이시죠.

다리 건너편은 저희가 운영하는 소막골 야영장입니다.

저 먼 옛날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이, 신라 법흥왕의 군사에 쫓겨 이곳에 와서, 소나 말에게 먹이를 먹이던 곳이라 하여, 소막골이라 불립니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던 구형왕은, 계속되는 신라군의 공세에 밀려 저 위쪽에 있는 산을 넘어, 지금의 금서면 화계마을로 갔으나,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망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당시 왕이 넘었던 재는 왕등재라고 불립니다.

대원사와 대원사 계곡 일원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114호(1991년 12월 23일 지정)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광을 유람하듯 즐기셨으면 하여 2018년 11월에 대원사 계곡길이 개통되었습니다. 여기 소막골 야영장에서부터 유평마을까지 약 3.5km의 거리 여러분들과 함께 대원사 계곡길을 걸으면서 곳곳에 숨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대원사 골짜기는 오래전부터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대원사 골짜기에는 신라 때부터 대원사가 자리 잡고 있었고, 천왕봉에 가장 짧은 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기에 조선시대 때는 선비들의 지리산 유람길의 베이스 캠프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때에는 전쟁을 피해 들어온 사람들과 저항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기도 했고, 한국 전쟁 때에는 소막골과 조개골에 빨치산의 아지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원사 골짜기는 지리산의 여러 계곡들 중에서 짧은 구간의 골짜기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인간이 살았던 역사가 길어 대원사 골짜기를 거쳐 간 사람도 많고 사연도 많은 대원사 계곡길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나무와 참나무

위를 한번보세요 소나무와 참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먼저 자랐을까요?

맨땅에서 햇빛을 좋아하는 소나무가 먼저 자란 다음 소나무가 그늘을 만들자 그늘을 좋아하는 참나무를 비롯한 넓은 잎나무들이 자랐습니다. 이윽고 소나무와 참나무의 키가 비슷해 졌고 서로의 햇빛을 더 받으려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늘에서 잘자랄수 없기 때문에 숲속은 점점 더 넓은 잎나무들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 소나무

여기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일까요?

앞에 늪름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나무는 애국가에도 등장할 만큼 우리 민족과 친근한 나무 소나무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솔가지를 끼워 문에 금줄을 달았고, 소나무로 집을 짓고 살면서, 생활 용품과 땀감으로 썼으며 솔잎으로 송편을 찌고, 먹거리나 약으로 썼으며 죽으면 결국은 소나무로 만든 관에 묻히게 될 정도로 땀해야 땀 수 없는 관계로 우리 민족과 운명을 같이한 나무입니다.

혹시 소나무 구분법을 아시나요?

소나무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잎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잎이 소나무, 3잎은 리기다소나무, 5잎은 잣나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장항동(노루목)

이 곳은 예전에는 지리산국립공원 야영장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삼장사지터 부근에서 대원사 계곡길의 마지막 지점인 유평마을을 걸쳐서 장항동이라고 불리고, 이곳은 장항령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장항령은 우리말로 노루목입니다. 또한, 뒤편으로 산죽이 아닌 대나무가 심겨 있는 곳으로 보아 정자(부운정)나 건물이 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 돌개구멍

영어로서는 포트홀이라고 하는 이것은 돌개구멍입니다. 포트홀이란 말은 뉴스에서 본 적 있으시죠? 아스팔트 포장길 표면에 생기는 크거나 작은 구멍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암석에 구멍이 동그랗게 나 있는 것도 포트홀입니다. 이런 지형은 물이 흐르면서 바닥의 작은 틈으로 모래과 자갈이 들어가서 빠르게 흘러내리는 물과 함께 소용돌이 치면서 암석을

깎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돌개구멍은 크기나 깊이가 작게는 수십 센티미터에서 크게는 수 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 국립공원의 깃대종, 히어리

지리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인 히어리는 3월 말에서 4월초에 8~12송이가 한 뭉치를 이루어 꽃대의 밑에서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긴 꽃대에 포도송이처럼 띄엄띄엄 노란 꽃뭉치가 달린답니다. 히어리는 1910년 전남 순천 조계산 송광사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히어리라는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15리'의 순천 사투리인 '시오리'에서 유래했습니다. 히어리 복원의 중심에 있었던 호남대 임동욱 교수는 히어리를 순천지방 향명으로 '시오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시오리는 십리(4km)에 오리(2km)를 더한 약 6km 거리를 의미하는데, 골짜기를 따라 북사면에만 분포하는 히어리가 마치 시오리 간격마다 출현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히어리는 2005년 환경부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지리산 일대와 경기도 광교산 등 자생지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2012년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산종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 지리산에 동물이 살아요

숲속 에는 곤충이나 새, 다람쥐와 같은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식물로부터 꿀이나 열매, 잎사귀 같은 먹이를 얻고 그들의 집을 얻는 신에 식물들의 자손들을 널리 퍼뜨려 줍니다. 이렇듯 다양한 동·식물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숲에서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 고라니

주로 물가에 서식하기 때문에 갈대숲 같은 곳에 보금자리나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5월경에 한배에 1-3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새끼는 흰 점과 줄무늬가 있다

### 물까마귀

물까마귀는 낮고 빠르게 날며 물가까지 걸어가 잠수를 즐기는 것이 취미며, 주로 낮은 산지 계곡 물가에 서식한다.

물속에서 먹이를 잡을 때는 헤엄쳐서 잡지 않고, 머리를 물속에 숙이고, 부리로 돌 따위를 물어 물살에 쓸려 내려가지 않게 몸을 지탱하면서 수생 곤충 등을 잡아먹는다.

### 수달

수달은 다른 족제비과 동물들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수환경에 적응해 살아왔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습니다.

## 다람쥐

우리나라의 부분 다람쥐는 줄무늬 다람쥐입니다. 쥐목에 속하는 다람쥐과의 동물입니다. 다람쥐는 전 세계의 250종에 있는데, 볼주머니가 있어 제법 많은 양의 먹이를 이동시킬 수 있으며 긴급 상황시 볼주머니에 새끼를 넣고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다람쥐는 자기구역을 가지고 있으나 영토싸움은 대체로 하지 않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먹이는 잡식성이며 곤충에서부터 각종 곡물류를 좋아하며 특히 도토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봄이 오면 겨울잠을 자던 다람쥐는 활동을 시작하며 4-5월경 짝짓기를 하며 새끼를 기르는 동안은 수컷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 청설모

소나무, 잣나무 등의 나뭇가지 사이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열매나 씨앗을 즐겨 먹습니다. 다람쥐와는 달리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 멧돼지

주로 해질 때와 동이 틀 무렵에 활동하며, 식물뿌리나 열매를 즐겨 먹습니다. 시각에 비해 청각과 후각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 군말을 보관하던 맹세이골

여기 보이는 곳은 맹세이골 자연관찰로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곳을 걸어 보면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입니다. 이곳에는 숲을 굽던 숲가마 터와 초가집 터, 그리고 불가에서의 장례가 이루어지는 다비장 터가 있습니다. 맹세이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곳에 호랑이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면서 맹수가 사는 골짜기라 하여 맹수골이라고 하다가 맹수이골, 맹세이골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설은 이 지역은 구형왕 때 군말을 임시 보관하던 곳이라고 해서, 말의 새끼인 망아지를 사투리로 망새이라고 부르던 것에서 연유하여 망새이골이 맹세이골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자연이 주는 교훈, 대원교

택리지에서는 우리나라의 산들을 크게 석산(돌산)과 토산(흙산)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토산입니다. 토산의 성격을 지닌 지리산은 암석의 노출이 거의 없고 비탈면이 직선상으로 발달하며, 거의 전 비탈면에 식생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토산인 지리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생태댐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때에도 웬만해서는 골짜기의 유량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펀지 같은 토산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무섭게 골짜기로 물을 토해낸 적이 있습니다. 1998년 7월 31일 밤에 지리산 전역에 걸쳐 3~4시간 동안에 200mm가 넘는 기습적 폭우가 쏟아져 대원교 근처 계곡에서 야영하던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골짜기에 물이 불어나는 속도는 석산에 토해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일을 계기로 자

연이 우리에게 치유와 안정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연을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나봅니다. 그 이후에 지리산국립공원은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일정량의 비가 내리면 위험 및 경계를 알리는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지리산에서는 강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석각 찾아보기 1

절 입구 가까운 곳이라면 南無阿彌陀佛(나무아미타불)이라는 한자를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불교 하면 많이 생각하는 말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의 뜻은 아미타라는 부처와 관세음이라는 보살에게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즉,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믿고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 일심(一心)으로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 대원사 일주문

이 곳은 대원사 일주문입니다. 기둥이 일직선 상의 한 줄로 늘어서 있다고 하여 일주문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관문이죠. 흔히 지붕을 얹은 일반 건축물이라면 네 개의 기둥을 사방에 세우고 지붕을 얹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주문만은 사방이 아닌 일직선 기둥 위에 지붕을 얹는 독특한 양식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심(一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가람에 들어서기 전에 세속의 번뇌로 부산히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일주문의 지붕은 대체로 다포계의 맞배지붕 양식을 취하고 있고, 그 규모는 어떠한 절에서나 일주삼칸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대원사 일주문과 같은 양식이 있기도 합니다.

## 일제의 잔재, 송진 채취 흔적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 전역의 소나무에서 송진을 채취해 전쟁물자인 송탄유(松炭油)를 제조했었다고 합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일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송탄유를 만들었는데, 소나무에 'V'자로 상처를 내 나온 송진을 받아 끓여 기름을 만드는 방법과 송진이 엉긴 소나무 가지나 옹이 또는 소나무 뿌리를 가마에서 열을 가해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제가 송탄유를 항공유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실제 항공유로 썼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송탄유를 항공기용 연료로 만들기 위한 공정이 필요했으며, 송탄유를 섞은 항공유로 시험비행을 했을 때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기록은 일본 측 자료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망한 뒤 남은 송탄유를 어선의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심으로 2~3분거리의 대원사 까지 묵언으로 시원한 계곡의 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걷도록 하겠습니다.

## 석각 찾아보기 2

‘심원’이라면 ‘근원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여섯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김황, 류인형, 오정식 등 유학을 깊이 공부한 분들입니다. 유학의 심원한 경지를 탐구하려는 의지를 갖고 모인 이들이 각자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 왜정기 때 당시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을 벗어난 이 곳 대원사에서 뜻이 맞는 학자 여섯이 함께 모여 독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과 공기가 맑고 산뜻한 곳, 특히 물과 수풀이 잘 어울리는 지리산의 명구에서 세상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옛 성현의 글을 읽으며 참다운 진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 대원사의 역사

이곳이 지리산 입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지리산이 아닌 “방장산 대원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왜 일까요?

옛날 중국에서는 동방 즉 중국의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에 신선이 살고 있는 세계의 산이 있고 그 산에는 불로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삼신산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금강산을 봉래산, 한라산을 영주산, 지리산을 방장산이라 했습니다. 현판에 쓰인 방장산은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하여, 불복산, 반역산 그리고 백두대간에서 흘러 내렸다 하여 두류산 등으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대원사는 신라 진흥왕9년(548년)에 연기조사(백제 말부터 통일신라 초기에 있었던 인도승려)가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당시 이름은 평원사였는데 임진왜란 때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이후, 이조 숙종 11년(1685년) 운권(雲捲)선사가 새로 지으면서 그 당시엔 대원암이라 했다가 고종 27년(1890년)에 혜훈선사가 중창하여 지금의 대원사가 되었습니다. 근대에 와서 1914년 11월 2일 밤, 불이 나 절 전체가 타버리고, 1915년 3월에 중창불사를 시작하여, 1917년에 완료하였습니다. 12동 건물에 184칸 규모의 대가람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여순사건의 여파로 다시 절이 불타버리고 1950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1955년 법일스님이 주지로 와서 중창을 서원했는데 불교정화운동의 여파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1959년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운 여건 아래 한두 채씩 전각을 지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대원사는 울산 가지산의 석남사, 충남 예산의 수덕사 견성암과 더불어 국내 3대 비구니 사찰로, 정갈하고 깔끔합니다. 대원사는 바위틈에 흐르는 맑은 물소리와 비구니들의 미소가 한없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며, 원통보전 뒤쪽에 나란히 서 있는 장독대가 유명합니다. 대원사 안에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탑에서 서광이 비치고 향기가 경내에 가득했다는 보물 1112호 대원사다층석탑이 있으나, 아쉽게도 일반인 출입은 통제된 곳에 있어 담장 너머로 올라온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 대웅전속 숨은 이야기



사찰의 중심이 되는 법당을 대웅전이라 하며, “대웅”이란 “이 세상의 큰 영웅”이라는 뜻으로 부처의 덕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찰에 대웅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불을 중앙에 모시면 “대웅전”, 아미타불을 모시면 “아미타전”, “극락전”, “무량수전”이라 하며, 비로자나불을 모시면 “비로전” 또는 “대적광전”이라 부른답니다.

자!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님이, 오른쪽에는 대행원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있습니다.

이제 세분의 불상을 자세히 보시면 미리 말씀드린 여느 사찰과의 다른 점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찾으셨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곳 대원사의 불상은 철불상이 아닌 “행자목불”입니다. 대원사의 불상은 은행나무로 만들어진 행자목불이며 예전 대원사가 어렵게 중창하던 시절 대웅전 뒤편으로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번개를 맞아 쓰러진 것을 이용하여 이렇게 3개의 불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대원사는 법일스님의 개인 사비로서 중창을 하였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웅전에 담집이 없으며, 또한 독성단, 칠성단이 대웅전에 다 함께 모여져 있는 것이 다른 사찰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대원사의 보물 다층석탑

이곳 대원사 다층석탑은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세웠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정조8년에 다시 세운 것으로 드물게 현존하는 조선 전기의 석탑양식입니다.

탑의 모습은 전체적인 체감비율이 뛰어나고 소박하며, 구성은 2층 기단 위에 8층 탑신을 세운 모습으로 꼭대기의 머리 장식은 일부분만 남아 있고, 기단의 위층은 이 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으로 모서리에 기둥모양 대신 인물상을 두었으며, 사면마다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탑신의 각 지붕돌은 처마가 두껍고 네 귀퉁이에서 약간 들려 있으며, 8층 지붕돌에는 금방이라도 고즈넉한 경내를 깨울 듯 한 풍경이 달려 있습니다. 대원사 다층석탑은 색상이 붉은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이 주변 계곡의 돌들이 철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세월이 가면서 산화되어 색이 붉게 변한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탑전에서 서광이 비치고 향기가 경내에서 가득했다고 하며, 마음이 맑은 사람은 근처 연못에 비친 탑의 그림자로 탑 안의 사리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이름마다 뜻이 다른 전각

#### 원통보전

이곳은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법당으로 “관음전” 또는 “원통보전”이라고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음성을 듣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주므로 “관세음”, 모든 형상을 두루 관찰하듯이 중생의 구제도 자재하므로 “관자재”, 모든 형상을 두루 들으므로 “원통대사”라고도 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의하면, “만약 한량없는 중생이 갖가지 고뇌를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여, 중생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복덕을 얻

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신을 불러주는 중생에게 중생의 됃됨이에 따라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 주신다고 하는데, 이곳 대원사 관세음보살님 뒤쪽의 후불탱화 속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33가지 모습 중 “백의관음보살상”으로, 이 보살님은 아이의 출산과 건강을 보살펴 주신다고 합니다.

### 원산신각(산왕각)

그럼 잠시 뒤로 이동하여 이곳의 산신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신각은 산신을 모시는 전각으로, 사찰에 따라서 “산령각”, “산왕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독성(나반존자), 칠성, 산신을 함께 봉안한 곳을 “삼성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전각입니다.

본래 산신은 도교에서 유래한 신으로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 많이 믿던 토착신입니다. 특히 산지가 70% 이상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산신 신앙이 멀리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산신이 불교에 수용되면서 호법신중의 하나로 전해내려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노랑 호랑이를 끼고 있지만, 이곳 대원사에서는 지리산의 산신이신 마고할미를 모신 여신이 하얀 백호를 끼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다시 이동하여 명부전을 보겠습니다

### 명부전

“명부”란 열라대왕이 다스리는 명토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모시고 죽은 이의 넋을 인도하여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전각입니다.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신 곳으로 “지장전”이라고도 하며, 지옥의 심판관인 시왕을 모셨다하여 “시왕전”,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전각이라 하여 “쌍세전”이라고도 합니다. 시왕이란 지장전 또는 명부전에서 지장보살을 모시고 지옥의 일을 각각 나누어 관장하는 열 분의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은 석가모니불의 입멸 후, 부처가 없는 시대에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그는 중생이 구원 받을 때까지 자신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보살로서, 특히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의 중생 제도가 지장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내세관에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49일 동안 “중음”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음 생의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9일 동안은 7일 마다 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명부의 시왕 중에서도 심판관의 우두머리인 열라대왕의 심판을 받는 날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여 “사십구제”를 중요시 합니다.

### \*사찰주변의 식물

#### 배롱나무

도금양목 부처꽃과에 속하는 낙엽활엽수

배롱나무의 또 다른 말로는 목백일홍 이라고도 한다. 100일 동안 간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줄기를 만지면 모든 가지가 흔들린다 하여 ‘간지름나무’ 라고 불린답니다. 예로부터 스님과 선비들은 배롱나무를 즐겨 심었는

데, 스님들은 묵은 껍질을 다 벗어 버리듯 세속을 훌훌 벗어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였고, 선비들은 정자 옆 배롱나무 아래서 떠나간 벗을 그리워하며 부정을 멀리하고 청렴을 지키려고 애썼다. 혹 사찰에서 즐겨 심은 또 다른 이유가 부처꽃과의 꽃나무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옛날 어느 어촌마을에 묵이 셋 달린 이무기가 살았는데 해마다 처녀 한명을 제물로 바쳐야만 마을에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 어느 해 한 청년이 나타나 제물로 바치기로 했던 처녀 옷을 입고 대신 제단에 앉아 있다가 이무기의 목 두 개를 베고, 나머지 목을 베어야 한다며 “내가 성공을 하면 흰 깃발을 뜻에 달고 실패하면 붉은 깃발을 달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처녀는 그 청년을 위해 백일기도를 드렸다. 백일 후, 멀리 청년의 배가 붉은 깃발을 달고 오는 것을 보고 처녀는 그만 바다로 몸을 던지고 말았다. 그런데 청년은 이무기가 죽을 때 뱀은 피가 깃발에 묻은 줄 몰랐던 것이다. 그 후 처녀의 무덤에서 붉은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백일 간기도를 드린 정성의 꽃이라 전해져 백일홍이라 불렸다. 그래서일까 ‘떠나는 벗을 그리워하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명자나무

봄에 피는 꽃 중 가장 붉은 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화려하지 않고 청순해 보여 ‘아가씨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꽃샘바람에 붉게 물든 얼굴색 같다. 요즘 봄꽃 구경하면서 걷다 보면 화단에서 한참 꽃망울을 만들고 있으며 빠른 것들은 본격적으로 빨간 꽃잎들을 정신없이 펴대고 있다. 명자나무 꽃은 아녀자 들이 보면 바람이 난다하여 담 안에는 못심게 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찰안에 명자나무는 스님들이 바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심겨 졌을까요?

### 방장산교

대원사 앞에 설치한 길이 58m 너비 2m의 방장산교 교량과 함께 시작된다. 이 교량은 대원사 계곡길 조성을 위해 설치했고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에 설치된 교량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큼니다.

### 용이 100년동안 살았다는 용소

지리산 대원사에서 300m쯤 올라가면 계곡에 있는 소입니다. 오랜 세월의 물의 흐름이 바위를 뚫어 항아리 모양의 연못을 만들었는데 깊이가 5m정도입니다. 이곳이 용소라고 불리는 이유는 용이 10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남해에서 올라오던 용이 이곳에 터를 잡고 백 년동안 살다가 어디로 갔는지, 위쪽 지리산 어느 봉우리에 자신만 아는 무릉도원을 만들었는지, 아래쪽으로 내려가 바다의 용왕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옥색의 물빛은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 진달래와 철쭉

진달래는 낙엽이 지는 떨기나무입니다. 중국에서는 진달래는 ‘두견화’라고 부릅니다. 전쟁에서 죽은 촉나라 왕이 두견새가 되어 흘린 피눈물이 떨어져 핀 꽃이 진달래꽃 즉, 두견화라고 불립니다. 옛날에는 봄이면 아이들이 산에 올라 진달래꽃을 따먹었는데 약간 시큼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 시큼한 맛은 꽃에 들어 있는 비타민C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참쌀가루 박죽에 진달래꽃을 얹은 화전을 지져 먹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꽃이라서 ‘참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달래와 매우 흡사하게 생긴 녀석이 있는 데, 힌트를 드리자면 이 식물의 꽃은 독성이 있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꽃”이라 불리었습니다. 진달래 보다는 조금 늦은 4월 말에서 5월에 꽃을 피우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철쭉입니다. 지리산에는 바래봉의 철쭉과 세석평전의 철쭉이 유명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진달래와 철쭉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가장 큰 차이점은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진달래는 꽃이 먼저피고 그 다음 잎이 나며, 철쭉은 잎이 나고 나서 꽃이 핍니다. 잎은 진달래는 끝이 뾰족하며, 철쭉은 잎의 끝이 둥글게 생겼습니다. 간혹 산철쭉과 진달래의 잎이 헛갈리기도 하지만 철쭉의 잎이 잔털이 많이 분포 되어 있습니다.

## 노각나무

이 나무의 수피 모양이 특이하죠? 다 같이 만져 보고 느낌을 말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나무의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세요.

이 나무 이름은 사슴뿔을 닮아서 처음에는 녹각나무라고 부르다가 언제부터인지 노각나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의 수피가 비단같이 부드럽다 해서 비단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각나무는 수피가 매끄러우면서 무늬가 아름답고 또한 6~7월에 하얗게 핀 꽃도 아름답습니다. 옛날에는 나무가 단단하면서 재질이 좋아 목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 생강나무

(꽃이 보일 경우 산수유와 비교)

지리산의 봄의 전령사라는 별명을 가진 식물을 아시나요?

바로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는 줄기 잎 꽃에서 생강향이 난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생강나무 잎을 씹을 싸서 먹거나 가루 내어 생강대신 썼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생강나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산수유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안계신가요?

산에 올라오시는 분들 중 가끔 생강나무를 보고 산수유라고 하시는데 두 나무가 잎과 열매로는 구분이 확실하지만 꽃이 피는 시기는 잎이 나기 전이고 꽃 색깔이 노란색으로 같아 많이들 헛갈려 하십니다.



산수유



생강나무

비교를 위해 꽃 사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생강나무인지 산수유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오른쪽이 생강나무 왼쪽이 산수유입니다.

생강나무는 꽃자루가 뭉쳐서 피어있고 꽃술이 짧은 것에 비해 산수유는 좀 더 길고 꽃자루가 퍼져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분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을의 봄소식은 산수유로부터오고 산의 봄소식은 생강나무로 부터 온다. 어떠세요, 이제는 좀 이해 가시나요?

(잎이 있을 경우)

여러분, 잎이 넓은 이 나무의 잎을 손으로 문질러 냄새를 맡아 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죠? 이 나무의 잎과 가지에서 생강냄새가 나지 않나요? 이 나무의 잎과 가지를 살짝 비비면 향긋한 생강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름도 생강나무입니다. 나뭇잎 모양이 특이하네요. 포크모양 같지요. 옛날에 생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나무의 잎과 가지를 말려서 생강처럼 양념 으로 쓰기도 했답니다.

### 정겨운 낙엽 속에서 뛰노는 아이들, 가랑잎초등학교

가랑잎초등학교의 정식 교명은 삼장국민학교 유평분교입니다. 학생들이 사시사철 가랑잎을 밟으며 등학교를 한다고 해서 이곳 주민들은 「가랑잎초등학교」라 부릅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1일, 마을주민들이 초가집한 채를 지어 「유평사설강습소」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2년 뒤, 삼장국민학교 유평분교로 설립된 이후 48년 동안 지리산자락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이었습니다. 개교한 지 몇 년 동안은 8살짜리부터 18살짜리의 학생까지 30여명이 한 교실에 웅기종기 모여 복식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6·25전쟁이 나면서 가랑잎학교도 한때 문을 닫았다가 지리산 공비토벌이 끝나자 학교 문을 다시 열고 1964년 2월 19일 처음으로 1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 뒤 점차 학생 수가 늘어나 1966년에는 유평국민학교로 승격되었고, 1970년대에는 전체 학생 수가 80여명에 달하면서 지금의 학교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화전농업으로 생활하던 마을 주민들이 정부의 산림녹화정책 등으로 하나둘씩 외지로 떠나가면서 학생도 줄어들었고 1982년부터는 다시 삼장국민학교 유평분교로 격하되었습니다. 결국 1994년에는 문을 닫고 이렇게 학교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없지만 자연 속에 폭 둘러쌓인 학교를 보고 있자니 하하호호 뛰노는 학생

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 지리산의 역사이자 사람들의 휴식처

대원사계곡길의 마지막 지점인 유평마을입니다. 대원사 계곡의 행정명칭은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입니다. 아름다운 이 계곡이 '유평계곡'이 아닌 '대원사 계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1960년대 까지 화전민이 살았던 이 계곡은 일제시대 항일의병의 은신처로, 한국전쟁 당시에는 빨치산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던 역사의 현장으로, 계곡에 있는 대원사가 역사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희고 깨끗한 계곡의 바위들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계곡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을 정도로 계곡물은 맑고 시원합니다. 대원사 계곡에서는 잠시 눈을 감고 숨쉬기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계곡물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마무리 및 정리

저와 함께 대원사 계곡길을 걸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 숲속에서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며 대원사계곡의 자연과 역사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도 듣고,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소리도 더해져 일상의 번잡함은 잠시나마 잊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더라도 지리산 대원사 계곡길에서의 휴식이 여러분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준 추억이 되기를 바라며 무사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